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4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송언 글 | 유승하 그림 | 웅진주니어 | 160쪽

독서 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표지 탐색하기

이름 :

〈왕팬 거제도 소녀 올림〉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앞표지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

2) 책의 제목 '왕팬 거제도 소녀 올림'을 보면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 것 같은가요?

⇨

3)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 저는 150살 흰머리 선생님의 왕팬 허서진이에요.
> 선생님이 지은 동화책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서,
> 꼭 한 번 편지를 써 보고 싶었어요.
> 동화 속 주인공들과 함께 흰머리 선생님 교실에서 공부하면
> 날마다 신나고 하는 일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 한 달만이라도,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 그것도 힘들면 딱 하루만이라도요!
> ㉠제 꿈은 이루어질까요?

① '허서진'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왕팬인 적이 있었나요?

⇨

② ㉠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어휘력 쑥쑥 키우기(1)

이름 :

〈왕팬 거제도 소녀 올림〉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입술을 (　　) 작가의 이름을 소리 내어 보았다.

(나) 어느 늦은 가을날 엄마가 (　　) 물었다.

(다) "고집부리지 마라니까. 판소리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란 말이다. 취미 삼아 배워 보는 건 괜찮지만 계속 매달리는 건 (　　) 일이제."

(라) 송익필 작가님은 장승포 바닷가에 (　　) 어욱발이 내려올 무렵 거제도를 떠났다.

(마) "세상에, 혼날 일도 했구마. 이건 혼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제. 아니할 말로 글쓰기 학원에 석 달 열흘을 다녀 봐라. 이 정도 편지 쓰는 게 어디 쉬운 일이고? 게다가 학원비도 안 들어가는 일 아이가. 이런 걸 어려운 말로 (　　)라 하는 기다. 엄마가 읽어 보니 억수로 잘 썼구마."

1) (가)~(라)의 각 빈칸에 들어갈 낱말과 그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① 거뭇거뭇 : 군데군데 거무스름한 모양.
② 정색하고 : 얼굴에 엄격한 빛을 나타내고.
③ 무모한 :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나 꾀가 없는.
④ 옴죽거리며 : 몸의 한 부분이 옴츠러들거나 펴지거나 하며 자꾸 움직이며, 또는 몸의 한 부분을 옴츠리거나 펴거나 하며 자꾸 움직이며.

2) (마)의 빈칸에 들어갈 한자 성어는 무엇인지 다음 뜻을 참고하여 쓰세요.

(　　) : 돌 한 개를 던져 새 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

어휘력 쑥쑥 키우기(2)

이름 :

〈왕팬 거제도 소녀 올림〉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준호는 신바람이 나서 현관을 나섰다. 준호는 떡볶이라면 (㉠).
· 드디어! 내가 존경하는 동화 작가 송익필 선생님한테서 답장이 온 것이다. 그것도 아주아주 초고속으로 말이다. 어휴, 이게 (㉡) 구분이 안 되네.
· "이제 봤더니 서진이가 송익필 작가님이 쓴 동화책을 정말 좋아했구나. 작가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반가워하실까?" 나도 모르게 (㉢).

(나) "너희 선생님이 150살이면 아빠는 15,000살이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린 아빠한테 안 통한다."

1) [보기]는 (가)의 빈칸 ㉠~㉢에 들어갈 관용적 표현의 기본형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이들의 뜻을 참고하여 ㉠~㉢에 각각 들어갈 관용적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보기] 마른침을 삼키다 사족을 못 쓰다 꿈인지 생시인지

· 마른침을 삼키다 : 몹시 긴장하거나 초조해하다.
· 사족을 못 쓰다 : 무슨 일에 반하거나 혹하여 꼼짝 못 하다.
· 꿈인지 생시인지 : 간절히 바라던 일이 뜻밖에 이루어져 꿈처럼 여겨지는 것을 이르는 말.

2) (나)에서 다음 뜻을 지닌 속담을 찾아 밑줄을 그으세요.

이치에 닿지 않는 엉뚱하고 쓸데없는 말.

국어 문법 실력 쑥쑥 키우기

이름 :

〈왕팬 거제도 소녀 올림〉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우리 아빠는 좀 다른데 엄청난 ㉠허풍(　　)다.

(나) 〈멋진 이슬비〉 〈금메달 광명이〉도 재미있는 ㉡장난(　　)잖아요.

(다) "판소리는 취미로 시작한 거 아이가. ㉢소리(　　)이 되려고 배운 거 아니란 말이다. 엄마 말이 틀렸나?"

(라) "니가 은솔이가 하는 판소리 같이 배우고 싶다고 졸라서 시작한 건 맞다. 하지만 판소리는 은솔이 전공이고 니는 곁다리로 시작한 거 아이가. 5학년에 올라가면 해야 할 공부가 산더미 같아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기다."

1) (가)~(다)의 각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다음 중에서 골라 쓰고, 이 말들의 뜻을 참고하여 ㉠~㉢의 낱말이 지닌 뜻을 써 보세요.

- —꾸러기 :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함.
- —쟁이 :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함.
- —꾼 :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함.

(가)		㉠	
(나)		㉡	
(다)		㉢	

2) 다음은 (라)에 제시된 낱말들입니다. 이 중,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을 아래에서 찾아 ○표를 하세요.

판소리　　같이　　시작　　전공　　공부　　시간

'송익필 선생님'의 왕팬인 '나'(서진)

이름 :

〈왕팬 거제도 소녀 올림〉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세상에, 이런 ㉠기쁜 일이 나에게 찾아오다니! 하긴 나에게 찾아오지 누구에게 찾아오나!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당연히 나에게 찾아와야 맞지.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걸까.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와도 정말 괜찮은 걸까.

나에게 ㉡꿈 같은 일이 찾아왔다!

드디어! 내가 존경하는 동화 작가 송익필 선생님한테서 답장이 온 것이다.

(나) 내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송익필 작가님이 쓴 동화책이 정말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 유쾌 통쾌 하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도 동화책 속에 ㉢150살 흰머리 선생님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1) (가)에서 밑줄 친 ㉠, ㉡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사건은 무엇인지 찾아 쓰세요.

⇨

2) (나)를 참고하여 '나'(서진)가 '송익필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2) 실제로 여러분이 ㉢과 같은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어떨지 자유롭게 상상하여 써 보세요.

⇨

'송익필 작가님'과 마음을 나누는 '나' ①

이름 :

〈왕팬 거제도 소녀 올림〉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와 나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송익필 작가님과 주고받은 편지 때문이었다. 여기까지가 좋은 소식이다. 이어서 ㉠나쁜 소식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나) 드디어 엄마가 입을 열었다. / "친구 은솔이 따라 배우기 시작한 판소리 공부 있제? 이제 얼마 있으면 겨울 방학이고 그러면 5학년 준비해야 안 되나. 이쯤에서 판소리 공부를 접었으면 좋겠다는 기 엄마 생각이구마." / "접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판소리 공부를 그만둔다는 뜻이제." / 나는 엄마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다)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뭐야?" / "꼭 그런 건 아니야. 알았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문제를 송익필 작가님께 편지로 쓸 거야. 그리고 작가님 답장을 받아 본 다음 내가 신중하게 결정할 거야. 그때까지 엄마도 기다려 줄 수 있지?"

(라) 작가님이 부산으로 내려오기 이틀 전.
나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부산 곰곰이 도서관에 갈 수 없게 되었다고. 작가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부산에 갈 수가 없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1) (나)를 참고하여 ㉠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

2) '나'(서진)는 ㉠과 관련된 고민을 누구와 나누기로 결심했는지 쓰세요.

⇨

3) (라)와 같은 상황에서 '나'(서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써 보세요.

⇨

'송익필 작가님'과 마음을 나누는 '나' ②

이름 :

〈왕팬 거제도 소녀 올림〉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7총사 사이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금은 김소미에게서 비롯되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김소미는 자기가 마치 7총사의 리더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다. 6총사일 때는 서로 비슷비슷한 위치에 있었다. 따로 리더가 필요하지 않았다. ㉠친구끼리 한 사람은 우두머리가 되고 나머지는 몸통이나 꼬리가 되는 건 좀 우습지 않나? 바람직한 모습도 아니지 않나?

(나) 늦은 밤에 나는 편지를 썼다.

우연히 6총사가 되고, 다시 7총사가 되었다가, 4총사와 3총사로 갈라진 사연을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았다. 그런 다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150살 흰머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가)의 밑줄 친 ㉠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

⇨

2) (나)에서 '나'(서진)가 '송익필 작가님'께 편지를 쓴 목적을 파악하여 써 보세요.

⇨

'송익필 작가님'과 '나'(서진)의 만남

이름 :

〈왕팬 거제도 소녀 올림〉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송익필 작가님을 우리 학교에 초대하는 건 어때요? 그럼 굳이 편지 안 해도 되잖아요. 작가님을 초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요?"

준호네 선생님이 토끼처럼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고는 소리가 나게 두 손바닥을 짝 부딪쳤다.

(나)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모두 끝이 났다.

송익필 작가님은 우리 식구와 함께 장승포 바닷가로 자리를 옮겼다. 가까이 마주 앉아 나는 몹시 쑥스러웠다. 아빠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써 주어서 다행이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었다.

1) (가)의 내용으로 보아, '송익필 작가님'께 편지쓰기를 주저하는 '선생님'에게 '나'(서진)가 제시한 방법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

2) '나'(서진)가 우연히 시작한 메일 주고받기가 (나)의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나'(서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써 보세요.

사고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이름 :

〈왕팬 거제도 소녀 올림〉에서 발췌한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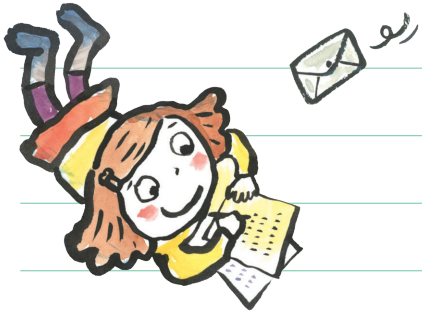
1) 옆의 그림은 어떤 모습인지 쓰세요.

⇨

2) 옆의 그림에서 '나'(서진)의 표정은 어떤지 쓰세요.

⇨

3) 위 그림의 '나'(서진)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팬이라면 그 분에게 '나'(서진)처럼 자신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 보세요.



정답과 해설

<table>
<tr><td>3쪽</td><td>(예시답안) 1) 한 여자 아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웃고 있다.
2) 어떤 사람의 팬인, 거제도에 사는 소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다.
3) ① 나는 3학년때부터 지금까지 엑소팬이다. 엑소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신이 나고 기분이 엄청 좋아진다. / ② 동화 속 주인공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허서진'의 꿈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td></tr>
<tr><td>4쪽</td><td>1) (가) : ④, (나) : ②, (다) : ③, (라) : ①　　2) 일석이조</td></tr>
<tr><td>5쪽</td><td>1) ㉠ : 사족을 못 쓰다, ㉡ : 꿈인지 생시인지, ㉢ : 마른침을 삼키다
2)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린(소리)</td></tr>
<tr><td>6쪽</td><td>1)
<table>
<tr><td>(가)</td><td>–쟁이</td><td>㉠</td><td>허풍을 잘 떠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td></tr>
<tr><td>(나)</td><td>–꾸러기</td><td>㉡</td><td>장난이 심한 아이. 또는 그런 사람.</td></tr>
<tr><td>(다)</td><td>–꾼</td><td>㉢</td><td>판소리나 잡가 따위를 아주 잘하는 사람.</td></tr>
</table>
2) 같이</td></tr>
<tr><td>7쪽</td><td>1) '나'가 존경하는 동화 작가 송익필 선생님한테서 답장이 온 것
2) 동화책 속에 150살 흰머리 선생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3) (예시답안) 나이가 150살이나 되기 때문에 나의 고민을 귀담아 잘 들어주고, 그동안의 노하우로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잘 제시해서 알려 주실 것 같다.</td></tr>
<tr><td>8쪽</td><td>1) '나'가 좋아하는 판소리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것
2) 송익필 작가님
3) (예시답안) 그토록 기다리던 일이었는데 '송익필 작가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 아쉬웠을 것 같다. 등</td></tr>
<tr><td>9쪽</td><td>1) (예시답안) 나는 ㉠처럼 말한 '나'의 말에 동의한다. 친구 사이를 우두머리와 부하의 관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친구사이는 서로 공평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
2) '나'가 송익필 작가님께 편지를 쓴 것은 친구 사이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이다.</td></tr>
<tr><td>10쪽</td><td>1) 송익필 작가님을 학교에 초대하는 것이다.
2) (예시답안) 무척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떨렸을 것 같다.</td></tr>
<tr><td>11쪽</td><td>1) '나'(서진)가 송익필 작가님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2) (예시답안) 자신이 좋아하는 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 무척 행복해 보인다.　3) 생략</td></tr>
</table>

웅진주니어

값 9,500원

9 788901 205786 74800

ISBN 978-89-01-20578-6
ISBN 978-89-01-03863-6(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